

한국과 일본의 문학을 테마로 한 관광산업화 현상 비교 연구

- 부산과 마쓰야마를 중심으로 -

권혁건*

kwon6134@hanmail.net

Contents

- I. 서론
- II. 마쓰야마의 문학을 테마로 한 관광산업화 현상
 - 2.1. 마쓰야마의 지역적 특성
 - 2.2. 마쓰야마의 문학을 테마로 한 관광산업
- III. 부산의 문학을 테마로 한 관광산업화 현상
 - 3.1. 부산의 지역적 특성
 - 3.2. 부산의 문학을 테마로 한 관광산업
- IV. 문학을 테마로 한 관광산업에 대한 제언
 - 4.1. 마쓰야마
 - 4.2. 부산
- V. 결론

Abstract

論者が釜山の金井區・東萊區地域と日本の松山地域における文學をテーマとした観光産業化現象を比較分析したものを要約すると次の通りである。

まず第一に、釜山は以前からの日本人観光客と最近増えつつある中國人観光客を同時に満足させ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課題をかかえている。それゆえ、釜山に埋もれているどの国の人も喜びそうな文學や文化に関連した多くの観光資源を發掘し紹介してこそ観光客を呼び寄せることができると考える。松山が都市の價値を高め、観光客を誘致することができたのは、都市に埋もれていた小説や俳句に関連した史跡等を観光商品化したためである。松山の商店街にある数百店にもなる商店では夏目漱石文學作品に出てくる団子・焼酎・みかん・コーヒー・ビール等を観光商品化して販賣している。

* 東義大学校 日語日文学科 教授 日本 近現代文学 専攻.

이 논문은 2010학년도 동의대학교 교내연구비에 의해 연구되었음(과제번호:2010AA010)

第二に、松山は夏目漱石文學を利用してむやみに利益をあげようとするもうけ主義の印象を観光客に与えている。それを解消するためには道後温泉本館近辺に、假稱「夏目漱石文學館」を建立すべきであろう。「夏目漱石文學館」の内部には彼の生涯や作品に関連するものを理解しやすく、かつ詳細に紹介する。國際セミナー室も兼備して日本はもちろんのこと、世界の夏目漱石研究者を毎年招請して「夏目漱石文學國際シンポジウム」を開催すべきであろう。

第三に、釜山金井區にある梵魚寺を迂回する坂道にたてられた文學碑、絵碑、樂山文學館等を、金井山文化道の金鍾植の絵碑を中心に駐車場も含め約二万坪規模の假稱「金井文學公園」を造成して、そこに移すことを提案する。この先新しく誕生する「金井文學公園」を梵魚寺と連係した観光地として開發してこそ観光客も増え、釜山市が文化都市として生まれ変わることができる。また、東萊温泉地域にある李周洪文學館を東萊温泉、禹長春記念館、東萊別莊、金剛公園、植物園と連係した観光商品化することも東萊温泉を活性化させるのに非常に有効であろう。

Key Words : 文學、觀光産業、釜山、松山、文學館、博物館

(Literature, Tourist industry, Busan, Matsuyama, Philosophie de la littérature, Museum)

I. 서론

21세기로 진입하면서 현대 국가들은 자국의 발전을 도모하던 시대에서 세계 각국의 번영을 위한 인류공영의 시대로 변모하고 있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은 인식의 변화로부터 세계의 주요 도시의 형태 또한 변모해 가고 있다. 세계를 리드하고 있는 미국과 유럽, 일본 등의 국가들이 도시를 하나의 상품으로 생각하여 브랜드로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오랜 갈등 끝에 등장한 한국의 지방자치제는 모든 도시들의 그 정체성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가져왔다. 지방자치제 실시는 「자체적인 도시발전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과제」²⁾를 제공하여 각 도시들은 나름대로의 발전전략을 내놓고 있다. 최근 지방자치제의 최고의 브랜드는 문화예술인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 지역과 구체적으로 관련된 유명 문화예술인의 문화산업적 가치는 높이 평가받고 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한국과 일본의 많은 도시들이 자기 도시를 상징하는 인물을 찾아내어 문학관·기념관을 짓는 등, 브랜드화에 열을 올리고

2) 원도연(2006) 『도시문화와 도시문화산업전략』한국학술정보, p.20.

있다. 문학의 경우만 해도 특정 「문학인의 이름을 딴 문학관을 지어 그 지역의 브랜드」³⁾로 삼고 있는 도시가 날로 늘어나고 있다. 작가의 생애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작품 탄생의 배경이 되고 있는 작중 무대인 「문학 공간 자체가 또한 훌륭한 문화콘텐츠」⁴⁾가 되고 있다.

위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게 된 것은 문학이 오랫동안 독서행위를 통해서만 향유될 수 있다는 인식과 문학관련 관광산업이 발달함에 따라 다양한 측면에서 문학의 새로운 향유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특히 1988년 지방자치법이 제정된 이후부터는 문학관련 행사를 개최하는 등 문화복지 기능을 담당하는 문학관이 전국에 걸쳐 건립되기 시작했다.

부산은 우리나라 제2의 도시이자 제1의 항만을 가진 항구도시이며 해운대 해수욕장·광안리 해수욕장 등 우리나라 어느 도시보다 아름다운 해변을 갖고 있다. 바다와 강, 산과 온천이 함께 있는 천혜의 자연 환경은 옛날부터 사람들이 자리를 잡고 살게 만들었다.

부산의 북쪽에 자리 잡고 있는 금정구와 동래구 지역은 온천, 사찰, 성곽, 문학관, 문학비가 있는 지역으로 일본 에히메현(愛媛県)의 마쓰야마(松山)와 닮았다. 부산 금정구에 범어사(梵魚寺)가 있다면 마쓰야마에는 이시테지(石手寺)가 있으며, 동래구에 동래온천(東萊溫川)이 있다면 마쓰야마에는 도고온천(道後溫泉)이 있다. 금정구·동래구에 요산문학관·이주홍문학관이 있다면 마쓰야마에는 시키기념박물관(子規記念博物館)·시키도(子規堂)가 있다. 다른 점이 있다면 마쓰야마는 자기 고장과 관련 있는 문학을 온천과 연관 지어 관광산업화하여 일본을 대표하는 문학도시, 온천 관광지로 발돋움하는데 성공했다는 것이다.

논자는 본 연구를 통해 부산의 금정구·동래구 지역과 일본의 마쓰야마 지역을 선정하여 면밀하게 두 도시를 비교하여 문학을 테마로 한 관광산업화 현상을 비교하려고 한다. 이런 분석 과정을 통해 두 도시의 관광산업 발전과 도시민의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데 도움이 되는 제언을 하려고 한다.

3) 한국문화기술연구소역음(2007) 『문학관과 문화산업』단국대학교출판부, p.21.

4) 위의 책, p.18.

본 연구는 부산 금정구·동래구 지역과 일본 마쓰야마 지역을 방문하여 현장을 확인한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성과를 유도해 내려고 한다. 때문에 금정구·동래구에 있는 문학관, 문학비, 동래온천, 범어사 등을 1989년부터 주 1회 이상 방문하여 현장을 확인하였다. 마쓰야마 지역은 1997년 5월, 1999년 7월, 2010년 8월 3회에 걸쳐 방문하여 연구 자료를 수집했다.

연구 범위를 부산의 금정구·동래구 지역으로 국한 시킨 것은 부산 전체의 문학을 테마로 한편의 논문으로 쓰기에는 연구 범위가 광범위한 까닭에, 금정구·동래구와 마쓰야마 지역 비교로 좁혔다. 본 연구와 관련된 선행연구물을 찾아보았으나 금정구·동래구와 마쓰야마 지역을 비교하여 문학을 테마로 한 관광산업화 현상을 점검한 연구는 발견하지 못했다.

II. 마쓰야마의 문학을 테마로 한 관광산업화 현상

2.1. 마쓰야마의 지역적 특성

일본열도 가운데 시코쿠(四國)는 혼슈(本州)와의 사이에 물결이 잔잔한 바다 세토나이카이(瀬戸内海)를 끼고 있는 섬이다. 시코쿠는 소용돌이치는 조류와 열대어가 떼지어 헤엄치는 해상공원, 아름다운 해안선, 그리고 오래된 전통과 역사를 지닌 명소와 유적지가 많은 고장이다.

시코쿠는 가가와(香川)·도쿠시마(徳島)·고치(高知)·에히메(愛媛) 등의 네 지역으로 나뉘어 있다. 마쓰야마시(松山市)는 시코쿠 에히메현의 현청 소재지이다. 2010년 4월 현재 「인구 514,137명, 225,915세대」⁵⁾가 살고 있는 도시로 시코쿠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도시이다. 마쓰야마성을 중심으로 성(城)의 도시로서 발전해왔고, 나쓰메 소세키(夏目漱石, 1867~1916)의 소설 『도련님』과 마사오카 시키(正岡子規, 1867~1902)의 하이쿠(俳句) 등 문학 작품의 무대가 된 도시이다. 마쓰야마는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진 도고온천(道後温泉)과 마쓰야마성, 나쓰메 소세키의 『도련님』, 시키기념박물관(子規記念博物館) 등을

5) http://www.city.matsuyama.ehime.jp/info/1182934_908.html(검색일:2010.09.20).

대표 관광 브랜드로 내세워 「2009년 추정 관광객수는 525만 4천명(전년대비 4.1%증가)」⁶⁾에 이르고 있다.

2.2. 마쓰야마의 문학을 테마로 한 관광산업

<사진1> 도고온천 모습(2010년 논자촬영)



마쓰야마는 옛날부터 내려오는 문화유산인 마쓰야마성과 도고온천을 기반으로 마쓰야마 출신 하이쿠 작가 마사오카 시키와 그의 친구이자 일본 근대문학의 아버지라고 일컬어지는 나쓰메 소세키라는 문학자를 접목시켜 문학을 테마로 한 관광도시로 발전시켜 왔다.

특히 3,000년의 역사를 자랑하며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도고온천에 나쓰메 소세키라는 문호의 작품 『도련님』을 관광 상품으로 접목시켜 국내외의 관광객을 끌어들이며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있다. 거리를 걷다보면 모든 것이 나쓰메 소세키와 관련되어 있고 이를 요란하게 선전하고 있어, 그의 탄생지가 마쓰야마가 아닐까 하는 착각을 일으킬 정도이다.

나쓰메 소세키는 1895년에 1년 남짓 영어교사로 근무했던 마쓰야마중학교의 교사 체험을 살려 『도련님』이라는 소설을 발표했다. 그가 도쿄제국대학 영문과를 졸업하고 1895년 마쓰야마중학교의 영어 교사로 부임해 왔을 때, 도고온천 본관(道後温泉本館)은 1890년 초대 읍장(町長)으로 부임해 온 이사니와 유키야(伊佐庭如矢)가 취임하여 노후화된 온천을 개축했다. 당시 「초등학교 교원의 첫 임금이 8엔의 시대에 총 공사비 135,000엔」⁷⁾을 들여 도고온천을 개축하여

6) <http://ja.wikipedia.org/wiki/%E6%9D%BE%E5%B1%B1%E5%B8%82>(검색일:2010.09.20).

7) <http://ja.wikipedia.org/wiki/%E9%81%93%E5%BE%8C%E6%B8%A9%E6%B3%89%E6%9C%AC%E9%A4%A8>(검색일:2010.09.20).

이것을 마쓰야마의 명물로 재탄생시켰다.

나쓰메 소세키가 마쓰야마에 영어 교사로 부임해 오기 한 해 전인 1894년에 도고온천본관은 이사니와 유키야 읍장에 의해 개축된 멋진 온천이었다. 때문에 『도련님』에는 「다른 곳은 무엇을 보아도 도쿄의 발뒤꿈치에도 못 따르나, 이 온천만은 훌륭한 것이다. 모처럼 온 것이니 날마다 들어가리라는 생각에서 저녁 먹기 전에 운동 삼아」⁸⁾ 온천에 가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다. 특히 「온천은 3층 신축 건물로 상등탕은 유카타를 빌려주고 등을 밀어주는데 8전이면 된다. (중략) 욕탕은 화강암으로 깔려 있다. (중략) 깊이는 일어서서 젓가슴까지 닿으므로 운동을 위해서 탕 속을 헤엄치는 것은 여간 유쾌한 일이 아니다」⁹⁾ 라고 온천의 구체적인 부분까지 묘사되었다.

그러나 『도련님』 속에 묘사된 온천명은 도고온천본관이 아니라 「스미다(住田)」¹⁰⁾이다. 이것은 나쓰메 소세키가 작품을 창작할 당시 지어낸 이름이다. 작품 속에 온천명을 도고온천본관이라고 명시하지 않고 「스미다」라고 표기했지만 다른 곳은 어느 곳을 보아도 「도쿄의 발뒤꿈치에도 못 따르나 온천만은 훌륭한 것이다」, 「온천은 3층 신축 건물 상등탕은 유카타를 빌려주고」, 「욕탕은 화강암으로 깔려 있다」 등을 고려해 보면 작품 속에 등장하는 온천이 도고온천본관임에 틀림없다. 실제로 현재도 도고온천본관은 3층 건물이고, 욕탕은 화강암으로 되어 있으며, 2층과 3층에서는 목욕 후 손님들에게 유카타를 빌려 주며 오차와 경단을 제공해 주고 있다.

작품 속 주인공 붓짱은 스미다 온천 주변에서 맛이 좋기로 평판이 자자한 경단 가게에 들어가 경단을 먹었다. 다음날 학교에 가서 수업에 들어갔더니 흑판에 「경단 두 접시에 7전, (중략) 경단 맛이 끝내줘요」¹¹⁾ 라고 쓰여 있었다.

도고온천본관은 『도련님』 속에 묘사된 인연을 중시했기 때문인지 도고온천본관 3층의 왼쪽 모퉁이 쪽에 다다미방이 하나 있는데 이 방을 「붓짱 방(坊っちゃんの間)」으로 꾸며 놓았다. 방안에는 나쓰메 소세키의 상반신만 있는 동상과 『도련님』에 등장하는 주인공의 모델이 된 선생들 사진이 들어간 액자가 걸려

8) 夏目漱石(1966) 『坊っちゃん』 「3」岩波書店、p.269.

9) 위의 책, p.269.

10) 위의 책, p.268.

11) 위의 책, p.269.

있고, 나쓰메 소세키와 부인 교코(鏡子)의 사진도 액자 속에 넣어져 걸려 있다.

마사오카 시키는 메이지시대의 대표적인 하이진(俳人)이자 가인(歌人)이다. 그는 생애를 통해 하이쿠(俳句)와 단가(短歌)를 근대적인 문학으로 끌어올리는 데에 힘썼다. 그는 마쓰야마에서 1867년 음력 9월 17일에 마쓰야마에서 태어났으며 본명은 쓰네노리(常規)였다. 부친인 쓰네나오(常尙)는 마쓰야마번(松山藩)의 신분이 낮은 무사였으나 마사오카 시키가 6살 때에 세상을 떠났다. 모친인 야에(八重)의 손에서 자라난 그는 마쓰야마중학교 시절에 정치가를 꿈꾸었다. 1883년 도쿄로 상경하여 이듬해인 1884년 9월에 도쿄대학예비문(東京大學豫備門 : 현재의 도쿄대학 교양학부)에 입학했다. 도쿄대학예비문에서 후에 일본 근대문학의 대표적인 작가가 된 나쓰메 소세키와 알게 되어 친구가 되었다.

마사오카 시키는 청일전쟁의 중군기자로서 중국 대륙으로 건너갔으나 폐병으로 인해 귀국하는 배 안에서 피를 토하고 고베항에 상륙하여 병원에 입원하였다. 이 시기에 친구였던 나쓰메 소세키는 마쓰야마중학교의 영어 교사로 부임해 있었다. 마사오카 시키의 고향에 온 나쓰메 소세키는 당시 자신이 하숙하고 있던 구다부쓰안(愚陀佛庵)에 폐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마사오카 시키를 불러 약 2개월 간 같이 지냈다.

마쓰야마시에서는 마쓰야마 출신인 마사오카 시키를 기리기 위하여 도고온천 근교에 시키기념박물관(子規記念博物館)을 만들어 근대 하이쿠의 모든 것을 한 장소에 모아 하이쿠의 전당을 만들었다. 1981년 4월 2일 마쓰야마시에서 개관한 시키기념박물관은 마쓰야마시의 심벌로 여겨지고 있으며 일본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이 박물관을 보러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고 있다.

<사진2> 붓짱열차 모습(2010년 논자촬영)



나쓰메 소세키는 『도련님』이라는 작품을 통해 마쓰야마에 대하여 호의적으로 쓰지 않았다. 『도련님』 속의 하숙집 영감을 아주 예의 없는 사람으로 묘사한다든가 중학교의 교감(赤シャツ)과 알랑쇠(野だいこ) 교사를 책략과 아침으로 살아가는 부정적인 인간으로 묘사했다. 학생들도 선생을 골탕 먹이는 말썽꾸러기로 표현한 대목이 많다. 한국 같으면 자기가 살고 있는 고장과 고향 사람들을 나쁘게 묘사한 작가를 그냥 놔두지 않을 것이다. 그 고장 사람들이 단결하여 단체로 강하게 비판하거나 작품 불매운동을 벌일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마쓰야마 사람들은 자기 고장과 자기 고장 사람들을 좋지 않게 표현한 것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그 반대로 나쓰메 소세키 작품 속에 자신들이 살고 있는 고장과 고향이 묘사된 것을 오히려 기쁘게 생각하는 아량을 보이고 있다.

도고온천본관 바로 앞에 있는 상점에서는 『도련님』 속에 등장하는 경단을 붓짱 경단으로 만들어 팔고 있다. 『도련님』 속 주인공 붓짱이 매일 하숙집에서 도고온천까지 타고 다녔던 「붓짱 전차」는 1954년에 사라졌다. 그러나 『도련님』이라는 소설에 등장한 도고온천을 찾는 관광객들이 많이 몰려오자 2001년에 디젤 엔진으로 움직이는 객차 2량짜리 전차를 복원하여 운행하고 있다. 현재 운행되고 있는 붓짱열차를 복원하기까지 많은 난관이 있었지만 지역민의 성원을 바탕으로 하여 복원되었다. 환경을 배려하여 디젤엔진을 장착하였고 증기 발생장치를 통해 굴뚝에서 연기를 내뿜으며 기적음을 내며 마쓰야마역에서 도고온천 주변 관광지를 경유하는 코스로 다니고 있다. 붓짱열차의 차장의 복장도 가능한 옛 그대로를 충실하게 재현했다. 요즘에는 마쓰야마시와 결혼업체의 연계로 달리는 열차 안에서의 결혼식이 거행되기도 한다.

에히메현은 일본 전국에서도 감귤 생산량이 많은 지역이지만 그 중에서도 마쓰야마의 생산량이 가장 많다. 에히메현에서 생산되는 감귤은 「품질과 양 모든 면에서 일본 제일을 자랑」¹²⁾하고 있다. 『도련님』 속에 등장하는 감귤에서 착안하여 에히메현과 마쓰야마시에서는 「베니마돈나(紅マドンナ)」라는 브랜드로 특화시켰다. 에히메현과 마쓰야마가 지역특산품인 감귤의 브랜드명을 『도련님』의 등장인물인 아름다운 여성 주인공 이름인 마돈나로 정한 것은 「주홍색을 띠고

12) 社団法人愛媛県観光協会発行(2010.07) 『愛媛』, p.14.

있는 귀부인 같은 과일, (중략) 마돈나 같은 예쁜 과일」¹³⁾이라는 이미지를 통해 감귤의 매출을 신장시키고 마쓰야마를 전세계에 알리기 위한 노력일 것이다.

도고온천 상점가에서는 나쓰메 소세키와 『도련님』의 주인공을 이용하여 소세키 선생 커피, 붓짱 아이스크림, 붓짱 우유, 붓짱 맥주, 작품 관련 티셔츠, 아카샤쓰 소주, 야마아라시 소주, 베니마돈나 감귤 등을 팔고 있다.

또한 도고역에서 2분 거리에 「붓짱 자동인형 시계탑」을 도고온천본관 100주년을 기념해 1994년에 제작하여, 도고온천본관 주변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기다릴 때 유용한 장소로 이용하게 하고 있다. 「붓짱 자동인형 시계탑」은 오전 8시부터 밤 10시까지 30분마다 시계에서 종이 울리며 『도련님』의 주인공을 모델로 하여 만든 인형들이 시계 안에서 문을 열고 나타나 많은 관광객들의 환호를 받고 있다. 「붓짱 자동인형 시계탑」 앞에는 안내원 할아버지가 『도련님』에 대하여 관광객들에게 설명을 해 주고 있고, 소설 속의 마돈나 차림을 한 기모노 차림의 안내원이 기념촬영 모델로 관광객을 안내하고 있다. 별것 아닌 것을 유명한 국제 관광상품으로 만드는 마쓰야마 사람들의 지혜를 엿보게 하는 장소이다.

마쓰야마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고장과 지역 사람들을 좋지 않게 평한 작가의 작품도 포용하여, 시(市)와 시민이 일심동체가 되어 문학자와 문학 작품을 온천관광과 연계시켜 관광 상품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Ⅲ. 부산의 문학을 테마로 한 관광산업화 현상

3.1. 부산의 지역적 특성

한반도 동남부에 있는 대한민국 제2의 도시이자 우리나라 제1의 국제무역항을 갖고 있는 부산은 일본의 후쿠오카(福岡)와 중국의 상해(上海), 멀리 유럽 등 항구를 통해 여러 나라와 연결하는 관문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부산시는 2009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인구는 3,574,347명으로, 2008년보다 21,700명」¹⁴⁾이 줄었다. 인구가 줄어드는 이유는 부산 내의 일자리 부족으로 인

13) <http://556.jp/SHOP/mgk kitea.html>(검색일:2010.12.12).

해 수도권과 경남지역으로 유출 되는 인구가 많기 때문이다. 출산율은 2009년 0.94명으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낮은 출산율과 급속한 고령화, 인구의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인해 부산은 머지않아 제2의 도시마저 인천에 그 자리를 내 줄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부산의 산업경쟁력은 70년대 중반 이후부터 점차 약화되기 시작했다. 약 10년 전부터 새로운 성장 동력을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대기업의 부재와 기업 경영하기 좋은 환경을 구축하는데 실패하여 많은 중소기업과 공장들이 김해, 양산, 창원, 울산 지역으로 옮겨 갔으며, 그런 이유 등으로 인해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우리나라를 찾아온 외국인 관광객 중에서 「1980년대 중·후반에는 전체 방문객 중에 부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50%」¹⁴⁾에 달했다. 하지만 타 도시들이 관광산업을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전략적 산업으로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차츰 부산의 상대적 비중은 감소하고 있다. 2000년대 중반 이후의 점유율은 전국 대비 20% 후반대에 머무르고 있다.

이처럼 부산은 마쓰야마보다는 인구가 많고, 면적이 넓은 도시이나 1970년 이후 침체의 길을 걷고 있으며 문학과 관련된 것을 관광상품화하지 못하고 있다.

3.2. 부산의 문학을 테마로 한 관광산업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문화산업 진흥정책이 시행된 것은 1999년 2월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이 발효된 이후이다. 2001년에는 문화산업진흥기관인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이 설립되었고, 2003년에는 문화콘텐츠산업이 10대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의 하나로 선정되었다. 이후 2008년 2월 전국 7대 도시의 일정지역을 문화산업진흥지구로 지정하여 부담금 면제, 인허가 면제, 세제 지원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부산시의 문화산업에 관한 정책의 추이에 관하여 류태건은 아래와 같이 논하였다.

14) <http://enc.daum.net/dic100/contents.do?query1=10XXXX5155>(검색일:2010.09.20).

15) 김영표(2006) 「부산관광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 『현안연구』부산발전연구원, p.34.

부산 IT/CT 산업을 지원 육성하기 위해 1997년 부산 소프트웨어지원센터를 개소한 이래, 2001년에는 부산 멀티미디어 지원센터 그리고 2002년에는 부산 IT벤처센터를 개소하였으며, 2002년 7월에는 이들을 관할하는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을 수립하여 지방문화산업 지원센터의 역할을 부여하고 있다. 아울러 2004년에는 해운대구 우동 일대를 국가로부터 문화산업단지로 지정받은 뒤 2008년 2월에는 이를 문화산업진흥지구로 전환하였다. (중략) 2000년에는 부산영상산업발전의 기본 방향을 정립한 '부산광역시 영상산업 발전전략'을 수립하였으며, 2003년에는 영상산업 발전전략 마스트플랜인 '시포트부산'을 수립하였다. 그리고 2007년에 마련된 '부산 경제증흥을 위한 10대 비전'에는 영화·영상타운 조성을 10대 비전의 하나로 설정하면서 영화·영상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부산을 아시아의 영화·영상메카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¹⁶⁾

위와 같이 부산시에서도 문화산업을 21세기 지역 발전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인식하여 최근에는 영화·영상산업에 집중적인 투자와 「부산국제영화제」의 지속적인 개최를 통해 어느 정도의 성과를 얻어내고 있다.

그러나 부산에는 문화회관·공연장·부산국제영화제 관련시설, 극장, 미술관, 박물관, 문학관 등 문화시설이 있으나 많은 사람들이 부산을 문화·문학의 불모지라고 혹평하고 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일 것이나 많은 공연 및 문화행사 등이 서울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부산에는 상대적으로 공연, 전시회 등의 문화·문학 관련 행사가 적게 개최되고 있는 것이 하나의 원인으로 제기되고 있다.

그렇다고 부산에 문학관련 시설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금정구·동래구에 있는 문학관 두 곳과 문학비가 몰려있는 한 곳을 통해 문학을 테마로 한 관광산업의 실태를 살펴보겠다.

첫째, 부산광역시 금정구 남산동 662번지에 있는 「요산문학관(樂山文學館)」은 요산 김정한(金廷漢) 선생의 숭고한 문학 정신과 민족정신을 계승, 발전, 육성시키고 지역 문화 발전, 시민 정신 함양에 기여하기 위하여 2007년 3월에 개관한 문학관이다. 요산문학관은 「대지 1128.76㎡, 연면적 749.80㎡의 반 지하 1

16) 유태건(2008) 「부산광역시 문화산업 추이」 『동북아문화연구』 제17집, 동북아시아문화학회, p.200.

층 지상 3층의 현대식 건물과 넓은 정원으로 꾸며져」¹⁷⁾ 있다. 요산문학관 입구에는 기와집으로 된 김정한 선생의 생가가 자리잡고 있다. 요산문학관의 업무 및 기능은 자료 수집·보존·진열·열람할 수 있게 제공하며, 소장품의 보관·진열·문학 관계 도서 수장·문학 관련된 프로그램 운영 등이다. 부산 금정산 범어사 아래 남산동의 비탈길 주택가 한 가운데 있어서 이곳의 지리를 잘 모르는 사람이 처음 찾아가기에는 쉽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요산문학관을 들어가 보면 의외로 시설이 깨끗하게 보전되어 있고 김정한 선생의 문학에 관련된 자료가 잘 보존되어 진열되어 있다.

<사진3> 요산문학관(2010년 논자촬영)



둘째, 「이주홍문학관(李周洪文學館)」은 향과 「이주홍 작가(1906-1987)가 1971년부터 1987년 별세할 때까지 기거했던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 1동 177-18번지 가옥을 부산광역시의 지원금으로 구입하여 개축한」¹⁸⁾ 것이다. 이 지역의 개발 공사 때문에 2004년 5월 현 위치에 문학관을 이전 신축하였다. 이주홍문학관은 이주홍 선생께서 소장했던 도서 및 서화를 비롯한 유품을 전시하고 문학세미나, 문학 강연회, 창작 수업을 통해 시민에게 문학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1층 60평, 2층 50평의 건물과 90평의 정원으로 되어 있다. 이주홍 선생이 평소에 창작활동을 했던 서재를 그대로 보존하여 문화유산으로서 기능도 하고 있다. 2층 서재에는 이주홍선생이 사용했던 1만 여권의 도서가 그대로 있으며 유품 등과 이주홍 선생이 교류했던 전국의 문인들이 보낸 편지가 보관되어 있다. 희귀 본으로는 1930년대 이주홍 선생이 직접 제호와 표지화, 삽화의 작품을 발표했

17) 요산문학관 편(2010) 『요산문학관』, p.4.

18) 사단법인 이주홍문학재단(2010) 『이주홍문학관』세종출판사, p.5.

던 『신소년』 잡지철, 1936년 이주홍 선생이 창간했던 카프 계열 순수 문예지 『풍림』 묶음, 카프 계열의 작가들이 발표했던 『별나라』 잡지철 등이 있다.

셋째, 부산에 산재한 「문학비·시비는 모두 80여개」¹⁹⁾에 이르고 있다. 어린이 대공원에 세워져 있는 문학비는 요산 김정한 선생의 문학비(1979년)을 비롯하여 12개가 세워져 있다. 금강공원은 호젓한 분위기 속에서 문학비를 감상할 수 있는 곳으로 이주홍문학비(1988년)가 세워져 있다. 이 밖에도 이기대공원과 사직야구장 인근의 사직공원, 영도 동삼동의 미니공원, 암남공원 순환도로, 범어사 우회도로, 낙동강 제방도로가에도 문학비와 시비가 세워져 있다.

약 80개 정도의 문학비와 시비가 있는 부산은 전국에서도 많은 문학비·시비를 가지고 있는 도시이다. 그런데 많은 부산시민들은 문학비와 시비가 어느 곳에 세워져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부산에 문학비가 많다는 것은 부산을 배경으로 태어난 작가와 시인이 있다는 것을 뜻한다. 특히 문학비는 부산과 관련되어 탄생되었기에 부산 사람들의 정서가 고스란히 배어 있다.

부산에 산재한 문학비 가운데 금정구에 세어진 문학비를 살펴보겠다. 범어사 입구에서 우회도로 내리막길을 내려가면 문학비와 그림비가 도로가에 세워져 있다. 이곳을 요즘에 「금정산 문화거리」라고 불리고 있다. 금정산 문화거리의 2km에 이르는 내리막길을 따라 줄줄이 들어선 문학비와 그림비가 사람들의 눈길과 발길을 잡아끌고 있다. 이곳은 문학의 향취가 풍겨나고 주변의 공기가 맑고 깨끗하며 발 아래로 청룡동과 남산동 일부가 보여 경치까지 좋아 주말에는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다.

「금정산 문화거리」에 세워진 문학비와 기념비를 순서대로 소개하면 범어사 입구에서 약 100미터 정도 내려가면 오른쪽에 요산 「김정한 문학비」가 첫 번째로 나온다. 이후 3.1 운동 유공비를 지나서 두 번째로 나오는 것이 향파 「이주홍 문학비」이다. 세 번째로 나오는 것이 황산 「고두동 문학비」, 네 번째로 나오는 것이 「김대륜 그림비」, 다섯 번째로 「김종식 그림비」가 나온다.

19) 김은영 외 7인저(2005) 『신문화지리지』산지니, p.176.

IV. 문학을 테마로 한 관광산업에 대한 제언

4.1. 마쓰야마

마쓰야마성과 도고온천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유적지가 없는 마쓰야마는 한마디로 나쓰메 소세키의 문학을 관광 상품화하여 먹고 사는 도시처럼 보인다. 나쓰메 소세키의 『도련님』이라는 소설을 비롯한 마사오카 시키의 하이쿠(俳句) 관련 문학 유산들은 일본에서 마쓰야마라는 도시가 없어지지 않는 한 영원히 훌륭한 문학 자원이 될 것이다.

마쓰야마는 나쓰메 소세키 문학을 관광 상품화하여 문학의 산업화를 이룩한 성공한 도시이다. 하지만 마쓰야마는 나쓰메 소세키라는 문학자와 『도련님』를 내세워 너무 수익을 올리는데에 혈안이 된 것은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든다. 붓짱의 도시로 많은 상업적인 이익을 창출하고 있는 마쓰야마는 나쓰메 소세키가 이곳 출신이 아니라는 이유로 마사오카 시키의 기념박물관은 세워주었으나 그를 기념하는 문학관은 건립해 주지 않는 듯한 인상을 받게 하고 있다.

마쓰야마시와 주민들은 나쓰메 소세키 문학을 이용하여 너무 실리주의만을 추구하지 말고 진지하게 문학을 사랑하는 프로그램을 선보여야 된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도고온천분관 근처에 있는 시키기념박물관 주변 지역에 가칭 「나쓰메 소세키 문학관(夏目漱石文學館)」을 건립해 주어야 할 것이다. 가칭 「나쓰메 소세키 문학관」 안에는 소세키의 생애와 관련된 도쿄 시절, 마쓰야마 시절, 구마모토 시절, 런던 유학 시절 등으로 구분하여 소개하는 코너를 만들고, 작품에 관련된 것을 상세하게 진열 소개해 주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마쓰야마를 찾는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나쓰메 소세키의 생애와 업적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그의 작품성을 알림으로서 진정한 문화예술도시로 마쓰야마가 거듭나리라고 여겨진다.

4.2. 부산

최근 중국의 경제적 부상은 부산의 관광산업의 활성화에 기회를 안겨 줄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 10년간 부산을 찾는 중국인 관광객은 꾸준히 증가해 왔

으나 마침내 2010년 7월 일본을 제치고 외국인 관광객 1위로 부상했다.

유정우의 주장에 의하면 부산을 찾는 중국인 관광객은 「2015년에 약 120만 명에 달할 것」²⁰⁾이라고 한다. 유정우는 이에 따른 「생산유발효과는 약 4조4,000억원, 고용유발효과는 약 14만5,000명으로 추정된다. 부산은 중국인 관광객 120만 시대에 대비해 해양, 한류문화, 쇼핑, 미용의료 등 부산의 강점이 있는 4개 분야를 특화해 집중적으로 관광 상품을 개발」²¹⁾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유정우가 주장하고 있는 바와 같이 부산에 중국인 관광객이 늘어날 조짐이 보이는 시기를 고려하여 금정구·동래구의 문학을 테마로 한 관광산업에 대한 제언을 아래와 같이 셋으로 나누어 논하겠다.

첫째, 범어사는 부산 금정구 청룡동의 금정산에 있는 부산을 대표하는 절이다. 678년인 신라문무왕 18년에 의상(義湘)에 의해서 지어진 후, 조계종으로 합쳐진 화엄종(華嚴宗)의 10대 사찰의 하나이다. 현재 보물 제434호로 지정된 대웅전을 비롯하여 3층 석탑(보물250호), 당간지주(幢竿支柱), 일주문(一柱門), 석등(石燈), 동·서 3층 석탑 등의 지방문화재가 있으며 이 밖에 많은 전각·요사·암자·누(樓)·문 등이 있다.

부산 금정구 범어사 입구에서 우회도로 내리막길 금정산 문화거리에는 김정한 문학비, 이주홍 문학비, 고두동 문학비, 김대륜 그림비, 김종식 그림비 등이 있다. 또한 금정산 문화거리 끝트머리의 남산동 언덕배기 나지막한 곳에 요산 김정한 선생의 생가가 있으며, 이곳에 「요산문학관」이 아담하게 자리 잡고 있다. 2003년에 복원된 요산 김정한 생가는 해마다 10월이면 부산 문인들을 한데 끌어 모으는 구심점이 되고 있다.

위와 같이 범어사와 금정산자락이 문학과 사찰, 그림이 함께하는 공간으로 새롭게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문학비는 접근성과 조형미, 사후관리가 중요하다. 아무리 좋은 취지로 문학비를 세웠더라도 사람들이 찾아가기가 힘들다면 소용 없는 일이다. 범어사 아래의 금정산 문화거리에 세워져 있는 문학비와 그림비는 일방통행의 차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내리막의 경사진 길 모퉁이 도로 옆에 바

20) 유정우(2010) 「중국인 관광객 120만 시대, 부산의 대응」 『BDI포커스』 제67호, 부산발전 연구원, p.1.

21) 위의 책, p.1.

짜 붙여 세워져 있어서 제대로 감상을 한다는 것이 어렵다. 작은 안내 간판이 있다고 하더라도 문학비를 찾아내기도 힘들다. 여유롭게 사색을 하며 감상할 수 있는 평지에 세워 놓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몰입해서 보기도 힘들며 비탈길의 차량 통행으로 인해 불안함을 느끼며 볼 수밖에 없다. 한마디로 문학비와 기념비의 위치 선정이 잘못된 곳에 세워진 것이다.

문학비를 제대로 감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평지에 여유 공간을 갖춘 곳에서 사람들이 안정된 상태에서 볼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 때문에 범어사 아래의 금정산 문화거리에 가칭 「금정문학공원」을 만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주차장 포함 2만평 정도의 규모로 「금정문학공원」을 건립하여, 위치가 안 좋은 곳에 세워진 김정한 문학비, 이주홍 문학비, 고두동 문학비, 김대륜 그림비, 김종식 그림비 등을 이곳으로 모두 옮겨서 한 곳에서 즐길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부산시 금정구 남산동에 있는 요산문학관은 언덕진 비탈길에 세워져 있어 찾아가는 길이 만만치 않다. 지하철로 간다면 1호선 범어사역에서 내려 청룡초등학교를 지나 주유소를 지나 언덕길을 올라가서 빌라 맞은편으로 가야 한다. 차를 이용하면 남산동 언덕의 비탈길에 있기 때문에 주차할 곳이 마땅하지 않다. 남산동 산복도로에 차를 주차하고 가야하는데 전용 주차장 시설이 없어 이용하기가 불편하다. 부산시에서는 남산동 산복도로에 요산문학관 입구리는 안내 간판을 세워주고 전용 주차장을 만들어 주어야 할 것이다. 가칭 「금정문학공원」이 건립되면 현재의 요산문학관과는 별도로 김정한기념관을 새롭게 그곳에 세워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게 하는 것도 검토해야 될 것이다. 금정문학공원을 만들어 부산을 대표하는 사찰인 범어사를 방문했다가 돌아가는 길에 이곳에 들어서 문학비, 기념비, 김정한기념관을 함께 구경할 수 있게 해야 될 것이다.

둘째, 부산 동래구 금정산 기슭에 있는 동래온천은 이미 신라 때부터 신정(神井)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었다. 1691년(숙종 17)에 처음으로 욕사(浴舍)를 지었다고 하며, 그 후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약 100년간 폐허로 되었다가 이 고장 유지인 고창녕(高昌寧)에 의하여 재건되었다. 1883년(고종20)에는 일본인들이 온천장의 일부를 조차하여 경영하다가 주민의 반발로 일단 물러갔다.

일제강점기 때에 기계로 동래온천을 본격 굴착하여 원수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일본 쓰시마(對馬島)의 이즈하라(巖原) 출신의 도요타 후쿠타로(豊田福太郎)였다. 그는 1906년 현재의 농심호텔 자리를 굴착하여 폭포처럼 솟는 온천 용출수를 개발하여 그곳에 봉래관이라는 여관을 지어 영업했다.

현재 대부분의 온천수는 시영 양탕장(揚湯場)에서 뽑아 올려 파이프라인으로 관광호텔이나 공중탕 등의 업소에 공급하고 있고, 자체적으로 탕원(湯源)을 개발하여 사용하는 업소는 9개소 정도이다. 시영 양탕장의 경우 5개 천공(泉孔)에서 하루 1,100-1,200t의 물을 뽑아 올리며 수온은 62도 정도다. 천질은 단순천으로 약알칼리성 식염천(食鹽泉)이다. 위장병, 치질, 신경통, 부인병, 피부병, 아토피, 고혈압, 당뇨병 등의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한다.

<사진4> 이주홍문학관(2010년 논자촬영)



동래온천에는 농심호텔과 대규모 온천시설인 허심청을 비롯하여 오랜 전통을 가진 녹천탕, 천일탕 등 대중 온천 목욕시설, 호텔들이 집중적으로 들어서 있다. 농심호텔의 뒷쪽 노천족탕 옆에는 부산광역시 기념물 제14호 온정개건비(溫井改建碑)가 세워져 있다. 1766년 10월에 세워진 이 비는 높이 144cm, 폭 61cm으로 송광적이 비문을 썼는데 동래부사 강필리가 온정을 개수한 일을 기록하고 있다.

예로부터 수질 좋기로 이름난 동래온천은 1970년대까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온천이었다. 크고 작은 온천이 시장처럼 밀집해 온천장(溫泉場)이라는 이름까지 얻는 동래온천은 한때 부산을 대표하는 여행지로 인기를 얻었다. 하지만 도심 재개발이 지연되고 전국 곳곳에 최신 시설의 온천이 속속 문을 열면서 동

래온천은 서서히 시민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져 갔으며 온천 관광지로서의 명성을 잃어가고 있다.

동래구에서는 동래온천을 온천특구로 지정받아 오랫동안 침체된 온천장 상권을 활성화시키는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동래구가 「온천특구지정」에 정부에 신청하게 된 이유는 온천장에는 온천수를 사용하는 목욕탕과 숙박업소 등 50여개 업소들이 밀집, 부산의 대표적인 온천타운을 형성하고 있으나 시설 노후화 등으로 인해 상권이 장기간 위축²²⁾되고 있기 때문이다.

동래온천 지역에서는 단순히 온천만을 즐기려고 하는 관광객 유치에 주력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연계 관광 상품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온천만 즐기려고 하는 관광객은 그 숫자가 한정되어 있고, 전국에 새로운 온천이 여기 저기 개발되어 사계절 계속해서 찾아오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유입된 관광객이 온천욕만 즐기고 동래지역을 떠나버리면 실제 동래온천 상권에 혜택을 주는 것은 별로 없다. 때문에 온천욕과 함께 그 주변지역에 있는 이주홍 문학관을 동래온천, 우장춘기념관, 동래별장, 금강공원, 식물원 등과 엮어서 문학·문화를 테마로 한 연계관광지로 개발시켜야 될 것이다. 또한 동래 허심청 주변에 가칭 「이주홍문학 자동인형 시계탑」을 제작하여 동래온천을 찾는 사람들이 약속 장소로 이용하게 하고 만나고 기다릴 때 유용하게 쓰이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부산 시민과 연구자들은 김정한·이주홍 선생의 생애와 문학을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하고 아직 미 발견된 문학 자료가 있다면 세밀하게 점검하여 연구에 대한 기초 자료를 확실하게 파악하여 보존해 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김정한·이주홍 선생의 일본유학 체험을 했을 무렵의 자료 발굴과 영향 관계 등에 관한 연구를 위해 일본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관련 자료를 모아 점검해야 할 것이다. 김정한 문학과 이주홍 문학이 한국 근현대문학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이광수 및 염상섭 등 한국 근대문학의 대표작가에 비해 저평가된 점이 있다면 연구자들의 꾸준한 연구 분석과 제대로 작품이 평가받을 수 있게 부산 시에서는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22) 신아일보, 2010.3.1(월) 「동래온천 옛 명성 되찾는다」기사.

위와 같은 김정환·이주홍 문학의 계속된 치밀한 연구 진척에 의해 작가의 생애와 작품이 새롭게 평가받게 되면 부산의 문학 관련 산업도 함께 발전할 수 있을 계기를 마련할 것이다.

V. 결론

논자가 이제까지 분석한 것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부산은 기존에 찾아오던 일본인 관광객과 새롭게 늘어나고 있는 중국인 관광객을 동시에 만족시켜 주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그러므로 창의적 생각을 갖고 문화 관광 상품을 개발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부산이 서울과 경주 등 다른 도시의 관광 정책만을 모방한다면 국내외 관광객들이 굳이 부산을 찾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부산에 숨어 있는 세계인들이 좋아할 만한 문학·문화 관련 이야기거리를 많이 발굴하여 소개해야 관광객이 찾아와서 머무르게 될 것이다. 마쓰야마가 도시의 가치를 높여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었던 것은 도시 속에 숨어 있는 소설과 하이쿠에 관련된 이야기를 관광 상품화시켰기 때문이다. 마쓰야마의 상점가에 있는 수백 개의 상점에서는 나쓰메 소세키의 문학 작품에 나오는 경단·소주·감귤·커피·맥주 등을 관광 상품화하여 판매하고 있다. 쉽게 설명하면 나쓰메 소세키와 마사오카 시키 등 마쓰야마와 연고가 있는 작가의 작품과 문학이야기를 상품화시켜 전 세계의 관광객을 끌어 모으고 있는 것이다. 마쓰야마에 비해 부산 금정구·동래구는 문학관·문학비가 있어도 즐기는 사람이 매우 적으며 부산시에서의 지원과 홍보도 미약하다. 더욱이 금정구·동래구와 연관이 있는 작가와 작품, 문학·문화관련 시설을 범어사·동래온천과 연계하여 관광 상품화시키려고 하는 계획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고 있다.

둘째, 마쓰야마는 나쓰메 소세키 문학을 활용하여 지나치게 수익을 올리고 이익만 챙기려고 하는 것 같은 인상을 관광객들에게 안겨주고 있다. 마쓰야마는 도고온천분관 부근에 가칭 「나쓰메 소세키 문학관」을 건립해야 할 것이다. 나쓰메 소세키 문학관 안에는 그의 생애와 작품에 관련된 것을 알기 쉽게 상세하게

소개해 주어야 한다. 특히 『도련님』 소설 속 주인공을 모델로 만들어 소개시켜 주고, 작품과 마쓰야마의 관련성에 대하여 안내하는 코너를 만들어 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국제세미나실도 만들어서 일본은 물론이고 전 세계의 나쓰메 소세키 연구자를 매년 초청하여 「나쓰메 소세키 문학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해야 할 것이다. 마쓰야마 시민들이 문학관련 국제 심포지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시민들이 문학을 즐기고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전 세계에 알려야 더 많은 관광객들이 마쓰야마를 찾을 것이며, 이 도시가 진정한 문화예술도시로 거듭나리라고 판단한다.

셋째, 부산은 해운대 해수욕장과 광안리 해수욕장 등 아름다운 해수욕장이 있어 매년 관광객들이 많이 찾고 있으나 잠깐 머물다가 바로 서울·경주 등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다. 금정구·동래구에는 범어사와 동래온천 등이 있으나 예전에 비교하여 관광객들이 많이 찾고 있지 않아 옛 명성을 잃어버리고 쇠퇴의 길을 걷고 있다. 문학·문화 관련 유명 작가와 과학자의 생애 관련된 곳, 공원, 식물원 등이 있으나 그와 같은 것들이 지역의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 그런 탓에 금정구·동래구 지역은 15년 전(1996년)만하더라도 부산을 대표하는 살기 좋은 지역으로 인정받았으나 현재는 부산의 강남으로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해운대 지역에 밀려 시민들로부터 크게 인기를 얻지 못하고 있다. 위와 같은 현실을 고려하여 현재 금정구 범어사 우회도로 비탈길에 세워져 있는 문학비, 그림비, 요산문학관 등을 금정산 문화거리의 김종식 그림비가 있는 곳 주변에 주차장 포함하여 약 2만평 규모로 「금정문학공원」을 만들어 한곳으로 옮겨 주길 제안한다. 앞으로 새롭게 탄생할 가칭 「금정문학공원」을 범어사와 연계한 관광지로 개발해야 관광객도 늘어나고 부산시가 문화가 있는 도시로 탈바꿈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동래온천 지역에서 걸어서 10분 정도에 있는 이주홍문학관은 부산광역시의 지원금으로 개축되었지만 현재 크게 활성화되고 있지 않다. 이주홍 문학관은 주변에 주차장이 있고 조용한 평지에 있기 때문에 시민과 관광객들이 손쉽게 이용가능하다. 동래 허심청 주변에 가칭 「이주홍문학 자동인형 시계탑」을 제작하여 동래온천을 찾는 사람들이 이주홍문학을 즐길 수 있게 하고 만나고 기다릴 때 유용하게 쓰이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주홍 문학관을 동래온천, 우장춘기념관, 동래별장, 금강공원, 식

물원 등과 연계하여 관광 상품화시키는 것이 동래온천을 활성화하는데도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 외에도 문학 작품에 나타난 동래온천을 발굴, 소개하여 그 이야기를 접한 사람들이 동래온천을 찾아 올 수 있도록 유도하는 문학을 관광산업에 연결시키는 정책 입안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참고문헌

- 김은영 외 7인저(2005) 『신문화지리지』 산지니, p.176.
- 김영표(2006) 「부산관광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 『현안연구2006-7』, 부산발전연구원, p.34.
- 사단법인 이주홍문학재단(2010) 『이주홍문학관』 세종출판사, p.5.
- 신아일보, 2010.3.1(월) 「동래온천 옛 명성 되찾는다」기사.
- 원도연(2006) 『도시문화와 도시문화산업전략』 한국학술정보, p.20.
- 유정우(2010) 「중국인 관광객 120만 시대, 부산의 대응」 『BDI포커스』제67호, 부산발전연구원, p.1.
- 유태건(2008) 「부산광역시 문화산업 추이」 『동북아문화연구』제17집, 동북아시아문화학회, p.200.
- 요산문화관 편(2010) 『요산문화관』 p.4.
- 한국문화기술연구소 역음(2007) 『문화관광 문화산업』 단국대학교출판부, pp.18-21.
- 社団法人愛媛県観光協会発行(2010) 『愛媛』 p.14.
- 夏目漱石(1966) 『坊っちゃん』 岩波書店, pp.268-269.
- http://www.city.matsuyama.ehime.jp/info/1182934_908.html(검색일:2010.09.20)
- <http://ja.wikipedia.org/wiki/%E6%9D%BE%E5%B1%B1%E5%B8%82>(검색일:2010.09.20)
- <http://ja.wikipedia.org/wiki/%E9%81%93%E5%BE%8C%E6%B8%A9%E6%B3%89%E6%9C%AC%E9%A4%A8>(검색일:2010.09.20)
- <http://556.jp/SHOP/mgkitea.html>(검색일:2010.12.12)
- <http://enc.daum.net/dic100/contents.do?query1=10XXXX5155>(검색일:2010.09.20)

- ❖ 투고일 : 2010. 12. 31.
- ❖ 심사일 : 2011. 01. 31.
- ❖ 심사완료일 : 2011. 02. 10.